

의로움으로 살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태 1,19)

3월은 성요셉 성월(聖月)입니다. 요셉 성인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탄생(마태 1,18-2,23; 루카 1,26-38; 2,1-20)과 유년기(루카 2,40-52) 등 몇 군데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많은 언급은 없다 하더라도 요셉 성인은 많은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공생할을 시작하기까지 요셉 성인은 가장(家長)으로서 성가정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성인은 법을 어기지 않고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 온 “의로운 사람”입니다.(마태 1,19 참조)

요셉 성인은 결혼 전 성모님의 임신 사실이 전해지자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생각 없이 조용히 파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에 성모님의 임신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른 성령의 개입이라는 것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성모님과 그 태중의 아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협력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의로움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규정을 지킨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자 노력하는 삶, 즉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의로움은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각각의 인간

을 위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로마 3,21-22,24) 이렇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의로움은 당신과의 친교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즉 믿음에서 출발하여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는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인간은 자신에게 갇혀 있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나 욕심에서 벗어나 이웃과 다른 피조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의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갈라 2,20 참조)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씨앗은 각자 안에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 의로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사순시기에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가정교리 (11)

예수님의 강생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강생(降生)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가톨릭교회 교리에서는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을 설명하는 데 쓰는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6-7) 이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즉 예



수님께서는 ‘참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시다고 교회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아드님은 하느님으로서의 본성(神性)과 인간으로서의 본성(人性)을 아울러 지니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굳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느님과 화해시켜 구원하시기 위해서(1요한 4,10.14),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요한 3,16),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2베드 1,4) 하시기 위함입니다.(간추린 가톨릭교회 교리서, 61-62쪽 참조) **금빛**

교황님 한 말씀

“지진 피해자들과 함께합시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온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목숨을 잃은 이들과 부상자들, 그들의 가족, 구조대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구체적인 도움이 이 끔찍한 비극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트윗 계정 메시지 中 -



본당 소개

김천 율곡성당



김천 혁신도시 율곡동에 위치한 율곡성당(주임신부 : 김성은 요한)은 2015년 1월 21일에 설립된 본당입니다. 초대 황영삼 마태오 신부의 천막미사로 시작한 율곡성당은 2021년 9월 5일 2대 주임 김대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때에 현재의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본당 입구 정문이 아주 넓고, 성당 마당에 주보성인이신 성모승천 성모님을 형상화한 성모당이 마련되어있습니다. 현재 신자 수는 1,400여 명이며 이중 유아 180명, 청년·청소년 420명, 그리고 장년층과 노년층 800여 명으로 구성된 젊고 활기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율곡성당은 2023-2024년 사목지침으로 구역 반모임 적극 참여(13개 구역, 소공동체), 제단체 모임 활성화(평신도 16개), 친교와 소통을 통한 활기찬 주일학교를 만들고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은 요한 주임신부는 “‘친교의 해’를 맞아 ‘서로를 향해’,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활기찬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하여, 본당 공동체와 한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사목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재 : 이춘식 하물드 | 살레시오 기자

이구동성

세계 여러나라 말로 미사경문을 배워 볼까요?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Holy Lord! God of hosts.

[영어]

홀리 롤드! 갓 오브 호스트스



聖なるかな! 万軍の神なる主。

[일본어]

세이나 루 카 나! 만 군 노카미나 루 슈.



圣, 上主! 万有的天主。

[중국어]

성, 상 주! 완 요우 더티엔 주.



Thánh! Chúa là Thiên Chúa các đạo binh.

[베트남어]

탄! 쭈어 라 티엔 쭈어 각 다오 빈.



¡Santo es el Señor! Dios del universo.

[스페인어]

싼포 에스 엘 세뇨! 디오스 텔 우니베르소.

교회의 상징들

타우 십자가(Tau Cross)



그리스어 ‘T’(타우)는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어 교부 시대 때부터 ‘십자가의 상징’으로 쓰여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문자 가운데 십자가 모양을 닮은 이 ‘T’(타우)를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침실의 문, 그리고 본인의 편지 마지막에 이 표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은 ‘타우 십자가’를 자신의 수도회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빛**

찬미받으소서(10)

신앙이 주는 빛



▶ 읽기

64항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돌보도록 촉구한다고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피조물 안에서의 자기의 책임은 물론 자연과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생태론적 의무를 더 잘 깨닫는 것은 인류와 세상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 생각하기

Q. 지구를 돌보는 일과 우리 신앙 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창조 세계를 보전하는 일이 단순히 ‘환경운동’에 그치지 않고 우리네 신앙살이와 관련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느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생태문제에 대한 관심은 신앙의 문제이며,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책무를 강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인류의 과업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그 과업은 단

순히 물리적 생존의 차원을 넘어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히 우리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주는 빛”을 따라서, 즉 복음적 시각으로 생태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태적 관심과 책임이 자연보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될 때 「찬미받으소서」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실천하기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생태적 회개를 한 후 복음적 시각으로 생태 환경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하여 사랑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생태적 회개란?

자연 세계에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찬미받으소서」 8항)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오는 내적 회개

생태 영성 (3)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

전기 없이 사는 삶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하루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 전원은 꺼질 것이고, 밥도 국, 반찬도 준비할 수가 없다. 컴퓨터를 켤 수 없으니 모든 업무도 마비된다.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 속 현실이다.

전기 소모량이 많아지면서 핵발전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더 많이 지으려고 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24기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두 기가 운영 대기, 두 기는 건설 중이다.

여기서 우리는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를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큰 사고의 여파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있다. 핵발전소에 필요한 핵연료는 사용 후 핵폐기물,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다. 1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이 핵폐기

물에 노출된 경우, 1분 이내 사망할 정도로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핵쓰레기는 최소한 ‘10만 년’은 안전하게 사회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 동네에 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은 반대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두려움과 고통은 방관한다. 오늘 하루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가 사실은 ‘위험한 쓰레기’를 남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다만 ‘깨끗한 전기’를 ‘모두’가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정책이 세워지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윤 에피파니아 수녀
(예수성심시녀회)



몸의 신학 (9)

자기 증여를 위한 몸

몸의 성사성은 우리의 몸이 가진 방향성, 즉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하느님을 닮았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몸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몸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선물’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몸이 가진 하느님의 자기 증여성은 예수님, 즉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하신 신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요한 1,14)

우리의 몸이 가진 ‘자기 증여’라는 목적과 방향성은 남녀 간의 혼인 안에서 성(性)을 통해서 온전하게 실현된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라는 말로 소개되는 혼인성사를 구성하는 이 말씀은, 혼인이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나 동물적인 욕구에 따른 결합을 아님을 이야기한다. 즉, 인간이 가진 최초

의 고독함(자신을 발견하는 자리) 안에서 필요로 했던 온전한 일치의 결과이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창세 2,22),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근원에서 출발하는 같은 품위(인격)를 지닌 존재이며, 처음부터 온전한 일치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친교의 관계, 즉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증여와 수용의 관계가 원죄로 인해 손상된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령이를 만들어 입었다.”(창세 3,7) 원초적인 순수의 상태에서 우리의 몸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내어주고 받아들이기 위한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석상희 요셉 신부
(교구 사목국 차장)



부부 이야기

부부관계 Upgrade! 'ME주말'

업그레이드

주일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성당 로비에서 부부피정인 'ME주말'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혼인 후 남편을 따라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저는 ME가 무엇인지 몰랐으며 평소 부부사이 좋다는 생각을 했기에, 아이도 어린데 부모님께 맡기고 가야 하는 2박 3일의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남편 레오는 오래 전부터 다녀오고 싶었다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푹푹한 22살 대학 축제 때 레오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슴같은 큰 눈망울에 나보다 어려 보이기까지 한 레오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설새 없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과입니까? 집은 어디예요? 최근 영화는 보셨습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질문에 웃음을 감추며 레오의 관심을 모르는 척하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시원하고 상큼한 얼굴에 귀엽고 선해 보이기까지 한 레오가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연애킴 동안 밀당없이 밀어 붙이기만 하던 레오는 제가 좋아하던 후리지아 꽃을 화훼공판장에서 박스채 사다주기도 했으며 감기라도 걸리면 연애 9년차에도 집 앞까지 찾아와 약을 전해주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동갑이지만 때로는 아빠같고 때로는 오빠같고 그리고 친구같기도 한 레오와 2004년 드디어 혼인을 했습니다.

연애킴이 길어 신혼 때 싸움은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인신고 후 동갑인 저희부부는 주도권의 지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를 주며 싸웠습니다.

어느 정도 각자의 권리가 안정될 쯤 저희 부부는 'ME주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주말을 통해 서로에 대한 연애시절의 소중한 감정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부부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매일 함께 저녁기도를 드렸는데, 'ME주말'을 다녀온 후에는 주말의 가르침이 더해져 레오의 깊이 있는 내면과 사랑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ME주말'에 참가하며 저희 부부가 그동안 잘살고 있고, 보기 좋은 부부라는 기존의 생각이 얼마나 시야가 좁고 교만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표현은 서툴지만 저보다 훨씬 깊은 사랑을 가슴 속에 지닌 다른 부부들을 보며, 못한 말을 내뱉거나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쟁겼던 부족한 저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 밀려 마음속 깊이 잊혀졌던 예전의 순수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ME전도자가 되어 모든 부부님께 권합니다. 부부관계를 한 층 업그레이드(Upgrade) 시켜주는 'ME주말'에 모든 부부님을 초대합니다. 🍷



안홍성 레오, 김문선 요안나 부부
(ME 대구협의회)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 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묵시 2,5)

이야기가 있는 가족 사진

은총의 성가정



결혼 40주년을 기념하여 촬영한 가족 사진이다. 1971년 2월 11일 고려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당시 나는 비신자였고 아내만 신자였다. 그래서 내당 성당에서 관면혼배를 받았다. 결혼 초

아내가 성당에 가는 것이 못마땅하여 잔소리가 많았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성탄 이브 미사는 꼭 참례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한국에 오서 여의도에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에 눈물로 TV를 시청하였다. 그해 삼덕성당 교리반에 입교하여 세례를 받았다. 드디어 성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 뒤 나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신부님이 권하는 성당의 모든 봉사직에 열심히 참가하였다. 총회장, 꾸리아 단장, 위령회장, 꾸리실리스파 회장 등에 봉사하였고, 지금은 복사단에 참가하여 10여 년 동안 복사 봉사를 하고 있다. 지금 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인도로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았다.

성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김태진 대건안드레아 (성바울로 성당) 알렐루야!!!

추억속으로

입학식



1951년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국민학교 입학식(제공: 박정자 엘리사벳 기자)



1975년 효성초등학교 입학식(제공: 선목학원)

부모와 자녀 관계 (11)

자녀의 생활 스트레스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만큼 높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우리 자녀는 어떤가요?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담하다 보면 자녀의 생활 스트레스 지수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만큼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면 어린 자녀일수록 신체 발달, 면역력 및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우울감 같은 정서적 어려움은 문제행동 또는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문제행동 수정이나 자녀의 학업 향상만큼 자녀의 스트레스 인식과 해소와 같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에도 부모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학년, 학급과 같은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수행과제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지 관심으로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시작입니다. ‘어? 이전과 ~가 다르네.’, ‘더 힘들어하는 것 같네.’, ‘짜증이 많아졌네.’처럼 자녀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은 ‘왜?’라는 궁금증을 갖고 변화 요인을 찾아 자녀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스트레스 상황을 이야기하면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공감, 다독임과 위로가 먼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스트레스를 잘 인지하고도 빨리 증상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에게 상황을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설득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와 스트레스 요인을 찾았다면 해결 방안도 함께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 또는 학원 스트레스가 증가했고 학습 난이도, 양, 시간 배분 등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표현한다면 자녀가 성취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 지낸다며 대화를 피하기도 합니다. 자녀 말대로 일시적인 자녀의 감정적 태도에 대한 부모의 걱정과 불안일 수 있지만, 만약 자녀가 홀로 해결하려 하고 스트레스를 회피 또는 억압한다면 짜증,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반응이 잦아지고 강해져서 스스로가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많아지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신호를 자녀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감하는 대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엄마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더라 너는 어때?”, “아침마다 학교 가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네가 기분이 안 좋은 날 단 걸 더 찾는 것 같더라.”처럼 스트레스 신호에 대해 서로 나누고 스트레스를 인지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가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기다립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외에는 운동하기, 그림 그리기, 하던 것 멈추고 잠시 눈 감기, 음악 듣기, 자전거 타기, 캠핑 가기 등과 같은 놀이나 활동을 자녀와 함께 찾고 연습해서 감정 순환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 관리로 자신들의 사회에서 적응과 성취를 잘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는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 배울 수 있도록 자녀가 부르면 닿을 수 있고 가끔은 부모가 다가갈 수 있는 거리에서 자녀와 자신을 돌보기를 응원합니다.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편지글

사랑하는 차은을 에밀리아에게...

- 초등학교 입학 앞둔 자녀에게 아버지가 -

2015년 어느 겨울밤, 엄마가 내밀던 작은 사진 속에 자그마한 점 하나로 아빠에게 다가온 우리 딸.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과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때가 얼마 전 같은데 시간은 벌써 이렇게 흘러 우리 율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한다니 또 감회가 새롭네.

아빠의 넉넉하지 못한 시작으로 좁은 원룸 방에서 너를 키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코끝이 시리구나.

그래도 엄마를 닮은 예쁜 마음으로 큰 투정 없이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무척 사랑하는 동생들도 두 명이나 생겼네. 차유준 이나시오, 차예준 미카엘, 장난꾸러기 남동생들 챙겨주느라 고생이 많아. 지금은 동생들이 어려서 율이도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명히 율이를 지켜주는 든든한 남동생들이 될 거야.

얼마 전 유치원 졸업발표회에서 율이가 직접 지은 예쁜 시 ‘오늘은

여덟 살이 되는 날’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율이가 걱정되기보다 기대가 되더라. 새로운 공간과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겠지만 너무 걱정 말고 율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내면 자연스럽게 멋지고 예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경험하면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 딸이 되길 아빠는 소망한다.

부족한 신앙이지만 우리 다섯 가족을 선물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차은을 화이팅!

우리 가족 파이팅♡

아빠 차현규 보니파시오
(월성성당)

차현규 보니파시오 · 서희정 보나 가족



노년의 영성

아름다운 마무리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끝과 시작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속담이다. 시작이 좋아도 끝이 흐지부지되면 시작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여러 가지 물건들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명품과 열등한 짝퐁이 있다. 명품과 짝퐁의 차이는 가격, 품질, 사용기간에 차이가 난다. 명품은 사용할수록 가치가 두드러지고 짝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명품과 짝퐁은 재료와 제조공법 그리고 A/S에서 차별화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최종 마무리로 구분되는 것 같다. 두 제품은 외양은 비슷하지만, 성능과 품질에서 차이가 난다.

인생살이와 상품의 사용 연도는 닮은 점이 많다. 인생은 탄생과 성장 그리고 노년이 있고 상품은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이 있다.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마무리가 완벽하여 흠이 없어야 한다. 명품의 가치는 마무리에서 판가를 나고 인생의 가치는 노년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 인간은 위대한 탄생, 활기찬 성장도 필요하지만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수적이다. 위대한 탄생은 선택이 아니지만 아름다운 마무리의 자주적인 선택의 대상이다. 바른 성장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지만 가끔 성장이 불완전해도 노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신은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끌게 된다. 인간에게 이로우를 주는 나무의 일생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배운다. 씨앗이 발아하는 탄생, 기품 있는 성장, 풍요로운 결실이 인생살이와 닮았다. 아낌없이 내

어주고 사라지는 나무의 일생이 아름다운 것처럼 노년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축복이며 후손에게 남기는 선물이 될 것이다.

노년이 욕심을 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마무리의 가족과 친지에게 전하는 값진 추억이며 유산이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褸 華而不侈)-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가 삶의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노년이 주장보다 경청에 중심을 두는 일상생활, 젊은이들의 고민을 듣고 공감하면서 지혜와 경험을 나눌 때, 세대 간 격차와 불통은 해소되고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노년은 지상에서 소풍을 즐기고 천상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떠난 자리는 정결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노년의 마지막은 여행자들이 즐기고 떠난 자리가 지저분하면 외면당하는 관광지처럼 인생의 끝자락이 아름답지 않아 망각과 경멸의 대상으로 남지 않아야 한다. 인간사는 탄생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감한다. 탄생이 기쁨이면 죽음은 아름다움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마지막을 위해 준비는 착실하고 철저해야 한다. 추한 노년이 되지 말고 아름다운 노년, 미움받는 노년이 아니라 존경과 대접받는 노년이 되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무리의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최상원 토마스
(가톨릭신문 명예기자)



활기찬 노년

지산성당 ‘바오로 복음화대학’



경주 진목정성지 순례

지산성당(주임신부 : 서덕교 야고보) 바오로 복음화대학을 소개합니다. 바오로 복음화대학(매주 수요일, 10:00-12:00)은 2020년 3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65세 이상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60명이 입학하여 8개 반으로 구성되었고, 12명의 봉사자가 함께 성경 공부 및 만들기, 종합예술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장인 신미란 데메프리아 자매는 “코로나19로 휴강하다가 22년 하반기 다시 개강하여 경주 산내면 ‘진목정성지’와 ‘OK그린청소년수련원’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의 나들이라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하셨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활동한 사진 전시회와 동영상 만들어 종강식 날 보여드리니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하고 친교로 서로 먼저 다가가는 성경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지산성당 바오로 복음화대학이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빛**

노년의 향기

전교야말로 최상의 신앙입니다

- 태전성당 명도회장 김병태 프란치스코 -



가톨릭 금빛신문은 태전성당에서 “선교왕”이라 불리는 명도회장(70대 이상 남성모임) 김병태 프란치스코 형제를 만났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노년의 향기가 가득한 그의 삶을 소개합니다.

금빛신문)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서 “전교야말로 최상의 신앙”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나로 인해 하느님을 알게 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뿌듯한 자부심을 넘어 끝없는 도전의식과 열정이 제 마음에 들끓음을 느낍니다.

금빛신문)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선교에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적극적으로 애정을 갖고 대시합니다. 선교 대상자와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상대방의 지적 수준과 관심을 파악해 적절히 응대하고, 여러 종류의 이해하기 쉬운 홍보 책자를 준비해서 「증, 김병태 프란치스코 (폰번호)」스티커를 붙이고 증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 방식의 전부입니다.

금빛신문) 끝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청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될 때 세상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배우고 싶어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집안의 가훈으로 삼아, 일어나 감사기도를 바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의 삶과 이야기에서 행복하고 기쁜 노년의 삶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취재·촬영 : 이근진 야고보(태전 성당)

노년의 이해(2)

지금, 내 마음의 시계는?

어떤 이는 나이보다 젊게 살아가고, 어떤 이는 나이에 맞게 혹은 그보다 늙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실제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기준은 '연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연령', 곧 달력상의 시간에 따른 연령으로 노인의 개념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 활용되는 개념일 뿐이지요. 그래서 '자각연령', 곧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나이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제 개인의 노화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은 이팔청춘'이라며 "내 나이가 어때서"를 당당히 노래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도 있었는데요, 일명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고 합니다. 하버드대 엘렌 령어교수는 모든 환경을 20년 전과 똑같이 셋팅한 특수한 환경에 70-80대의 노인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살아보도록 제안했다고 합니다. 실험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자가 보이지 않아 독서를 포기했고, 느릿느릿 걷는 게 민망해 운동도 하지 않았으며, 식사 때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골라 먹던 노인들은 50-60대가 된 것처럼 독립적으로 일주일을 지낸 후에 청력,

기억력, 악력 모두 현저히 회복되었으며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 등 여러 측정 결과에서 훨씬 '젊어'졌다고 합니다.

노화는 말 그대로 늙어가는 현상입니다. 신체적, 생리적인 기능의 감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을 겪게 되고, 심리적 측면에서는 지능, 학습능력, 성격이나 정서적 변화들을 겪게 되는 발달과정상의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들이 '기능저하'라는 감퇴현상이기에 우리는 노화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쉽습니다. '흙의 먼지로 빚어져(창세 2,7참조)' 한계성을 지닌 우리의 신체나 인지기능은 오랜 시간 소모한 결과 쇠퇴할 수밖에 없지만 '하느님 생명의 숨(창세 2,7참조)'을 부여받고 긴 세월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느님과 기도의 대화를 이어온 우리의 내적인간은 삶의 지혜나 경륜에서 성숙되어 갑니다. 그래서 노화는 감퇴와 성장이라는 양면을 지닌 복합적인 현상임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년기에 이르러 보다 마음을 써야할 부분은 기능적 감퇴를 늦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적 성숙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내 마음의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요? 다음 달에는 이 부분에 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선 영덕막달레나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심리학박사)

독자 투고

민들레의 강한 생명력과 같은 신앙

- 신앙을 이끌어갈 모태가 되시는 분들 -

경건한 미사시간.

영성체 차례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고 내 앞에서 계신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 한 올이 유난히 눈에 띄어 거슬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때, 마침내 옆에서 계신 한 할머니께서 그 머리카락을 살며시 떼어주신다.

하나의 수고로움을 털어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이자 베품일 것이다. 그 작은 의미를 실천하고 계신 우리 성당 어르신들의 모습이 크게 확대되어 비춰진다.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이신 태도는 본받을만하다. 자주 어르신 미사에 참석해보니 그분들의 신앙생활도 조금 알 수 있게 되고...하지만 신앙생활의 언저리에서 머물고 계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그분들은 신앙의 어르신들로 결코 가장자리에 머무실 분들이 아닌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굳이 세대차이 운운하며 그분들에게 한발 물러나 계시도록 하는 소외감을 빚어내게 하지는 않았을까? 어엿한 하느님의 어린 양들로써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본당 부활 행사인 율놀이대회에서도 많은 기량을 발휘하시고 레지오 활동에 열성적이신 모습은 신앙의 못자리에 계실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신앙을 이끌어갈 모태가 되시는 분들, 하느님께서 이웃의 수고로움을 덜고 마음의 빛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하느님의 반석이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 주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그분들의 신앙이 한층 견고해지길 기도드린다. 견고하고 무거운 바위 틈새서도 자라나는 민들레의 끈질긴 생명력처럼 전파되기를 기대한다.

이정화 세레나
(경산 성당)



건강한 음식 건강한 노년

우엉강정

재료 : 우엉 2뿌리, 전분가루 3큰술, 들기름 2큰술, 통깨 2큰술, 양조간장 2큰술, 국간장 1큰술, 다진마늘 2큰술, 조청 3큰술, 홍고추 1개, 청양고추 1개, 쪽파 2뿌리

껍질 제거 후 깨끗하게 씻어 썰고 식초물에 담가 놓습니다.

우엉 물기 제거 후, 준비한 파와 마늘, 고추(씨는 제거), 조청, 양조간장, 국간장 등을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우엉을 위생 봉투에 담고 전분가루를 넣은 후 봉투를 묶어 전분가루가 우엉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잘 흔들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후 전분 묻힌 우엉을 넣고 노릇하게 튀겨줍니다.

팬에 잘 튀겨진 우엉과 양념장을 넣고 잘 섞어서 볶아준 후 수분이 줄어들면 들기름과 통깨를 뿌려줍니다.

Tip!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에 좋은 아르기닌과 피부건강에 좋은 항산화 성분, 당뇨에 좋은 이눌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교육원 가동 3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조환길

주관: 박상용

편집: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Fax. 053-250-3078

E-mail. dgfamily@dgca.or.kr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 평균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살레시오 기자단이 가톨릭 금빛신문과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2017년 4월 30일 창간 _ 매월 마지막 주일 발행

가족성지순례 (11)

어농 청소년 성지

- 경기도 이천 -



가는길

자 가 용

네비게이션 '천주교 어농성지' 검색(성모당 기준 3시간)

대중교통

동대구터미널 → 이천종합터미널 → 버스이동(26-1번)
→ 어농3리 하차 후 도보(성모당 기준 4시간 35분)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수원교구 어농 청소년 성지는 2002년 8월 최덕기 바울로 주교에 의해 을묘박해(1795)와 신유박해(1801) 때 순교하신 선조들을 현양하기 위한 기념 성지로 선포되었다.

조선에 입국한 첫 번째 사제인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 영입(1794)에 힘쓰다 을묘박해 때 순교한 최초의 밀사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 지황 사바 순교 3위를 현양하고 있다.

한국 교회사에서 순교자 윤유일은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성직자를 영입하여 명실공히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여회장 강완숙 골롬바는 주문모 신부를 6년 동안 비밀리에 모시며 성무집행을 도왔다. 그러나 주문모 신부는 신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의금부에 자수하여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았다.

이곳에는 을묘박해 순교자 3위와 신유박해 때 순교한 주문모 야고보 신부와 강완숙 골롬바 등 14위를 포함해 모두 17위 순교자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들 17위의 순교복자 시복은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거행되었다.

어농 성지는 2007년에 청소년 성지로 선포되었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순교자들의 신앙과 용덕을 본받아 세상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성지로 신앙의 못자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천에 가시면 어농 청소년 성지를 방문하여 순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 살레시오 기자



55호 가정미션 : 사순시기를 맞아 가정 안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출·퇴근 보다는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 설문지 링크

설문기간 2023.02.26(주일) - 2023.03.12(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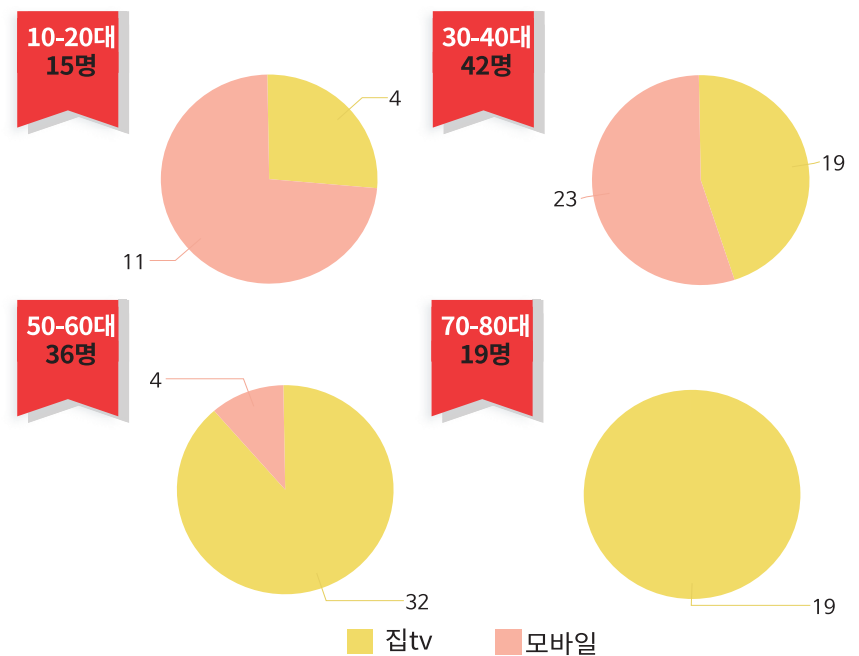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55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 연령대 : (세)
- 출·퇴근 보다는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 아니오

지난(54)호 설문 결과

주제 : 주로 TV 프로그램을 집 TV로 본다? 모바일로 본다?



공지사항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일시 2023.5.27(토) 14:00-17:00
- 토크콘서트 및 미사

장소 대구대교구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최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주관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문의 053-250-3077 · 3114

전시회

십자가를 품다

장소 드망즈 갤러리

작가 이경희 에드부르가

기간 2023.02.28 - 03.05

전시회

퀼트, 포크아트

장소 예담갤러리

주최 구묘란 마리아, 김미진 로마나

기간 2023.03.18-03.31